

학교생활

여분의 교과서는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교과서를 매번 들고 다니자니 가방이 너무 무겁네요. 교과서를 대부분 학교에 두고 다니는데 집에서 필요한 경우도 있어 여분의 교과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이성재(47·서울 금천구 독산동)

A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분의 교과서가 필요하거나 학교에서 받은 교과서를 분실해서 교과서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온라인으로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홈페이지(www.kitbook.com)에 들어가면 맨 위에 '교과서 구입'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 '온라인 주문'에 들어가 '주문하기'를 누르고, '주문할 교과서'에서 해당되는 학교의 급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고1 <통합사회> 교과서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주문할 교과서'에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클릭해 해당하는 과목의 교과서를 구입하면 됩니다. 출판사가 다양하니 주문 전에 자녀가 사용하는 교과서의 출판사와 저자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권을 묶음배송해도 한 번의 배송료는 내야 합니다. @

MORE TIP

만약 교과서를 분실해 내일 당장 필요한 경우라면, 오프라인 구입도 가능합니다. '교과서 구입' 항목에서 '서점 구입'으로 들어가면 교과서를 구비한 서점을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대형서점입니다. 출판사별로 교과서가 다 구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해당 서점 방문 전에 미리 재고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취재 김지영 리포터 janekim@naeil.com



입시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 요강은 다른 건가요?

4월 말이면 2021학년 대학별 모집 요강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2021학년 대입 전형을 요약해둔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전형 계획) 내용이 작년 4월 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으로 발표한 내용이 모집 요강에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 요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정지연(46·서울 송파구 신천동)

A '전형 계획'은 최소한의 필수 항목만, '모집 요강'은 최종 확정된 상세 내용을 공개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입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대입을 치르기 2년 6개월 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을 발표하고, 각 대학은 1년 10개월 전에 전형 계획을, 10개월 전에 모집 요강을 발표합니다. 현재 고3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이 고1이었던 2018년 8월 말에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발표했으며, 2019년 4월 말엔 대학별 전형 계획을, 2020년 4월 말에는 모집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 신숙경 팀장은 “전형 계획은 대입에서 학생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전형 방법, 모집 단위 등 대략적인 최소한의 항목을 담는다면, 모집 요강은 학생부 반영 방법을 비롯해 최종 확정된 대입 전형의 상세 내용을 담는다”고 설명합니다. 전형 계획에는 모집 시기별 모집 인원과 선발 인원 및 전형 유형,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정시모집의 해당 모집 '군',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별 선발 비율, 수능 응시 영역 또는 반영 영역과 반영 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 가(감)산점, 지원 자격,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

MORE TIP

한 번 공개된 전형 계획은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책임연구원은 “다만, 불가피한 사항은 대교협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항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거나 입학 전형 기본 사항 변경, 정원 감축이나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각 대학은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전형 계획에 반드시 확정, 공지된 모집 요강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을 덧붙입니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